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소액단기 유사보험 매출 호조

□ 기존 보험회사들이 보장하기 어려운 틈새시장을 겨냥해 만든 소액단기 유사보험 (일명 미니보험)의 매출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 주목됨.

- 소액단기 유사보험은 2006년 4월 처음 제도화된 이후 보험상품 및 사업규모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상품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와 독특한 컨셉으로 호평을 받으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음.

일본의 소액단기 유사보험(일명 미니보험(ミニ保険)) 개요

항 목	주요 내용
법 도입 시기	- 2006년 4월 1일, 보험업법 개정으로 관련 법 도입
설립 자본 요건	- 1,000만엔(일반 보험회사 10억엔의 1/100) 이상
상품 개발 요건	- 보험금 1,000만엔 이하, 1~2년 이내 단기
기 타	- 연간 보험료 수입(재보험료 제외) 50억엔 이하로 제한

자료 : 전관협공제회(www.zk2.jp) 홈페이지 참조

- 최근 일본 전관협공제회*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, FY2009 3분기 수입보험료는 전분기 64억엔보다 약 10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,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약 400억엔 이상으로 전년도의 371억엔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.

* 전관협공제회(全管協共濟會): 소액단기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조직해 만든 공제 단체로 현재 66개사가 등록

□ 그러나 최근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인지도와 협소한 시장 규모는 소액단기 유사보험시장의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.

- 소액단기 유사보험은 주로 의료, 애완동물, 지진 등 취급 상품을 1~2 종류로 제한하는 한편,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존 보험업계가 보장하기 힘든 틈새시장을 개척해 소비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.
- 그러나 소액단기 유사보험의 전체 보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.1%(FY2009 수입보험료 기준)에 불과하고 최근 3분기 실적에서도 낮은 인지도 및 부진한 영업력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임.

(전관협공제회 홈페이지, 마아니치신문, 3/3)